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총력

전북도,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현지 점검... 8~9월에 이코모스 전문가 현지 실사 예정

전북도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유네스코 현지실사를 거쳐 2022년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최훈 행정부지사와 이정린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남원1)이 도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대상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현지 점검하고, 남원에 있는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15일 경북 고령에 있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사무국이 남원으로 이전한 뒤, 지난달 21일 세계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국제협회의인 이코모스(ICOMOS)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올해 8월이나 9월에 이코모스(ICOMOS) 전문가의 현지 실사가 예정돼 있어, 올 한해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신청된 가야고분군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사적 제542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사적 제341호) ▲한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제515호) ▲합천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제119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의 7개 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한편,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는 유산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보존 상태 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민·관이 해당 유산을 어떻게 협력하며 관리와 활용하는지 등에 대한 부분도 평가됨으로, 주민 소통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유네스



최훈 행정부지사와 이정린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장이 도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대상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현지 점검하고, 남원에 있는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의 현지 실사와 자료 검토 등을 거쳐 2022년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등재 신청서를 지난 1월 유네스코에 제출했으나, 갈수록 엄격해지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자료 보완과

현지 실사 등 험난한 일정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지사는 "이제 전북·경북·경남 광역자치단체와 남원 등 7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지 실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서포와 방각본 이야기' 상설 전시

완판본문화관, 서포별 특징·간행 방각본 서책 소개

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이 새해를 맞아 상설전시를 개편했다. 오는 9월까지 이어지는 상설 전시의 타이틀은 '전주 서포(書舖)와 방각본(坊刻本) 이야기'이다. 방각본은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에서 판각해 간행한 책을 가리킨다. 전주 지역의 방각본을 '완판방각본(完版坊刻本)'이라고 하는데 방각본을 인쇄하고 판매하던 책방을 '서포'라고 한다.

이번 전시에서 전주 지역의 서포별 특징과 함께 간행되었던 방각본 서책을 소개한다. 특히 '완판본 온고지신(ON-故知新)'이라는 온라인 전시를 병행해 온택트(ontact)로도 전시 내용과 유물을 만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조선 후기 전주를 대표하는 서포로는 서계서포(西溪書舖), 다가서포(多佳書舖), 문명서관(文明書館), 완흥사서포(完興社書舖), 창남서관(昌南書館), 칠서방(七書房), 양책방(梁冊房) 등이 있다. 이 서포들은 대부분 전주 천변과 사대문을 중심으로 책을 발간하고 동시에 판매를 하던 인쇄소 겸 서점이었다. 서계서포에서 발간한 심청전(沈淸傳, 1906), 열여춘향수절

가, 다가서포의 행곡본천자문(杏谷本千字文, 1916), 칠서방에서 간행한 사요취선(史要彙選, 1916) 등 한글고전소설뿐만 아니라 교육용 도서, 생활백과용 도서, 의학서, 역사서 등 다양한 종류의 서책을 만나볼 수 있다.

안준영 관장은 "새로운 이야기와 지식을 요구하는 서민 독자의 증가로 다양한 종류의 완판방각본들이 간행됐다. 특히 목판 인쇄 문화는 신식 인쇄술이 보급되기 전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도서의 대중 보급이라는 역할을 했다"며 "서민의 교육 및 독서 저변 확대에 기여한 완판방각본(完版坊刻本)은 가장 전주다운 기록문화유산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 개편과 함께 설 명절 기획 행사도 진행된다.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문화관을 찾은 방문객을 위해 '완판본 달력 만들기', '형형색색 딱지본 책 그림 채색' 체험이 운영된다. 전시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은 관람객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타인과 적절 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정은성 기자

이날치, 신곡 '여보나리' → '수궁가' 완전체 버전 CD 발매

전통음악 기반의 팝밴드 이날치가 신곡을 공개했다.

이날치 측은 지난 3일 신곡 '여보나리'를 디지털 음원으로 발매, 오는 15일에는 '수궁가' 완전체 버전의 CD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수궁가' CD에는 지난해 용량의 한계로 바이닐에 실지 못했던 '악일레라'와 신곡 '여보나리'를 모두 담았다.

이 곡은 '수궁가'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의 연장이다. 토끼의 간을 찾아 육지로 가야 하는 별주부가 흠여머니에게 하직하고 아내에게 작별을 고하는 장면을 노래했다. 육지행을 만류하는 아내의 애절한 이별



이야기, 별주부의 걱정거리가 판소리 고유의 해학과 반전으로 풀어냈다. 이날치 측은 "전통 판소리에서 중중모리

장단으로 불리는 '여보나리'를 흥이 넘치는 댄스곡으로 선보인다. 두 대의 베이스와 드럼은 뉴웨이브·포스트펑크에 바탕을 둔 연주를 들려주고, 보컬 각각의 목소리가 가진 개성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4명의 소리꾼과 3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7인조 밴드 이날치는 판소리를 현대의 팝으로 재해석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가 삽입된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은 온라인 누적 조회수 5억 뷰를 돌파했다.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반'을 비롯해 5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뉴시스

정읍 역사·정체성 담은 유물 공개 구입 추진

시립박물관, 18~19일까지 무성서원·동학 등 관련 유물 신청 접수

정읍시립박물관이 공립박물관 정체성 확립과 전시·연구 자료 활용을 위해 정읍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구입 대상은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과 동학 농민혁명 등 정읍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자료로써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한다.

또 몽연 김진민과 동호 김석곤, 창암 이삼만, 석지 채용신 등 정읍 출신이거나 정읍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분들의 작품이다.

단, 도글푼이나 도난품 등 불법 유물이나 출처와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매매를 원하는 개인 소장자나 단체, 문화재

매매업자(문화재청 허가) 등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 기재된 서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유물에 대한 서류심사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유물 구입과 관련된 문의는 정읍시립박물관(063-539-6792)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관련 유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하겠다"며 "시립박물관이 문화복합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7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2021년 2월 16일(화)~17일(수)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 ▶ 주최 - 전주매일 신문
- ▶ 주관 - 전라북도스키협회
- ▶ 후원 - 전라북도, 무주군, 덕유산리조트
- ▶ 대회 신청 문의 - 063)288-9700 (전주매일 본사)

**이 행사는 전라북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